

별거 있나요  
출근 잘 하고  
밥 잘 먹고  
퇴근 잘 하면  
잘 살고 있는 거죠

SBI저축은행 X 최대호\_입어보시집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Autumn 2020 Vol.27



가을 나무의  
펼쳐지는 잎사귀마다  
내게 더없는 행복은  
이야기란다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Autumn 2020 Vol.27

발행일\_ 2020년 10월 7일

발행인\_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_ SBI저축은행 홍보부

담당\_ 유형근 주임(02-3416-4210)

주소\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_디자인\_ 디스토리

웹진\_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101(2020.10.07.H)

Autumn 2020 Vol.27

# C O N T E N S

## Life+

04 SBI 체험현장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베이킹에 도전!

10 SBI 금융상품  
금융의 답답함 '뽕', '사이다뱅크 하세요!'

14 SBI pick's  
90년생도 좋아하는 90년대 히트송

16 유튜브 중계  
진짜보다 더 리얼한 '가짜사나이'

## News+

22 세상읽기  
코로나19로 깨닫는 것들

26 SBI 포커스  
SBI(아이), 희망저축 캠페인

30 New Face  
정인화 상근감사위원 외 5명

32 SBI 희망뉴스  
2020년 3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모임이 어려워진 지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좋은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일요일날 빈둥대며 소파에 누워있으면 들리던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진 것? 뭐가 또 있을까요? 먹는 것들입니다. '집콕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맛난 요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2~3킬로 살쪘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지만 말입니다.

슬기로운 집Cook 생활에 지원한  
목동지점 김진아 사원(오른쪽)과  
박수빈 사원



##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베이킹에 도전! 슬기로운 집Cook 생활

글. 목동지점 김진아 사원

※ 발열체크 후 안전한 촬영을 위해 참가자 외에는 전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입사 3년차인 김진아 사원과 박수빈 사원은 직장동료이자 친한 친구이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끌려 홈 베이킹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했지 재료와 뒤처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영상으로 만족하곤 했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리치몬드 제과점 베이킹 수업” 참여 이벤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앗싸! 좋은 기회다. 수빈이랑 함께 신청하면 좋겠다.”

바로 응모를 했어요. 이런 당첨 운은 지리도 없었는데 “우와! 이제부터 가끔 로또도 사봐야겠어요.” 제가 뽑혔다는 전화소식이 신기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약속 시간 보다 30분 더 일찍 리치몬드 제과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시간 어길까봐 설기도 했지만 서울 3대 빵집으로 유명한 리치몬드 빵집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리치몬드 제과점 대표이기도 한 권형준 셰프한테 직접 배운다고 하니깐 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혹시 베이킹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뇨... 저흰 처음인데요.”

“오케이! 오히려 더 좋아요~ 아무 것도 몰라야 가르치기가 더 쉽거든요.”

셰프님이 엄청 재밌으시고 편하게 대해 주셔서 낯을 많이 가리는 저랑 수빈이도 즐겁게 베이킹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 위크 엔드와 헤이즐릿 캐러멜

오븐 디저트인 프랑스 전통과자 “위크 엔드”와 노오븐 디저트 “헤이즐릿 캐러멜” 2가지의 디저트가 오늘 우리가 배울 요리입니다. 먼저, “위크 엔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재료를 반죽기에 몇 번 돌리고 오븐에 넣으니깐 금세 금피 같은 위크 엔드가 만들어졌어요. 오븐이랑 반죽기만 있으면 집에서 언제든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쉬웠습니다. “원래부터 빵만들기가 이렇게 쉬웠나?”

쉬웠지만! 언제든 만들어 먹으면 10kg는 찢 것 같이 설탕과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 오븐을 사용하는 디저트

#### 위크엔드 (Week End)

- 전란 350g / 설탕 250g / 박력분 250g  
레몬 1개 / 태운버터 280g
- 프랑스식 파운트케이크 과자인 위크엔드는 160도 예열한 오븐에 50분 내외로 구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헤이즐넛 캐러멜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노오븐 디저트라 그런지 더 과정이 간단했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 중 헤이즐넛을 밀대로 부시는 부분이 있는데, 밀대로 헤이즐넛을 마구 마구 부시는 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재밌었습니다. 캐러멜이 굳으려면 상온에 2일 정도 뒀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타르트에 캐러멜을 부어 진행했어요. 덜 굳힌 상태로 타르트를 한입 베어먹었는데 22년 인생 가장 단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좋아하는 지점 동료인 운슬 언니가 생각났어요.



### 오븐을 사용하지 않는 디저트

#### 헤이즐넛 카라멜 (Caramel Noisette)

- 생크림 150g / 설탕 150g / 물엿 75g  
전화당 15g / 버터 10g / 헤이즐넛 30g  
바닐라빈 1/5개
- 후라이팬에 호일을 깔고 반죽을 올린 후 약한 불에 40~50분간 구워냅니다.



성공적인 베이킹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월요일에 워크 엔드와 헤이즐넛 캐러멜을 지점으로 가져갔습니다. 지점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는 혼자 집에서 베이킹을 도전해서 지점분들과 동기들에게 맛있는 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1979년 창업한 리치몬드 제과점은 83년 홍대점을 오픈 이래 우리나라 제과업계 사관학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1993년에는 제과기술학원을 설립했으며, 2002년에는 창업자 관상범 대표가 제과명장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제빵, 제과를 위해 농장운영 그리고 직영점 체제로 전환했으며, 2008년 서울시 트랜스 지방 안심제과점 1호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요미식화'에서 소개된 리치몬드 제과점은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운영하는 곳이며, 현재는 2세 권형준 셰프가 운영 중입니다.



#### 권형준 셰프 프로필

- 일본 동경제과학교 양과자 본과 졸업, 2003
- 일본 'AU BON VIEUX TEMPS (오봉뷰템)' 베이커리, 2003-2007
- 클럽 드 셰프 코리아(Club des Chefs Korea), 2017
- 리치몬드 제과점 대표, 2007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사이다뱅크>의 인기 비결  
젊은 혁신이 가득한 스마트 금융 허브 플랫폼,  
답답함을 뺄 뚫어줄 '사이다뱅크'하세요!

# 사이다

금융의 답답함 '뺄'  
"사이다뱅크 하세요!"



사이다뱅크란 무엇인가요?

SBI저축은행이 출시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어플입니다. 디지털 기술 도약과 함께 온라인 뱅킹 세대를 초월하는 '스마트 금융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금융생활 곳곳에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이다뱅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출시한 '금융 허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I 사이다뱅크, 신규 가입자가 많다고 하는데,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현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형화 되어 있던 상품과 서비스가 오히려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통장으로 정기예금을 대체 할 수 있고, 정기예금은 중도에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타행에서 출금해서 적금납입이 가능합니다. 사소하지만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가 20~40대 젊은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예금·적금 가입부터, 대출 신청은 물론, 신용정보 확인, 증명서 발급, 사고 신고 등 영업점에만 가능한 업무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대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설마, 명절이나 휴일엔 안되겠죠?

사이다뱅크는 영업시간이 따로 없어요,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이다뱅크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요??

'계좌충전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은행마다 로그인해서 계좌이체 할 필요 없이 사이다뱅크로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타 은행과의 경계를 허물어 고객의 편의를 업그레이드 시킨 서비스입니다.





그럼 수수료는 발생되나요?

'금융서비스'는 구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체 등 모든 서비스는 '이용'의 대상이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조건 없이 각종 이체, ATM 입출금,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금 수수료도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다뱅크의 전용 체크카드인 PAY백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만으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ATM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ATM기기에서만 면제겠죠?

아닙니다. PAY백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은행, 지하철,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기기에서 무료이며, 스마트출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GS25 편의점이나 제휴된 롯데유통점 피에스넷기기(세븐일레븐,롯데백화점 등)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이다뱅크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란 건 무슨 뜻이죠?

본래 플랫폼(platform)은 기차역의 승강장을 뜻합니다. 승강장에 기차와 승객들이 오가듯이 사이다뱅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은행·비은행 금융 서비스가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이다뱅크에 계좌만 있으면 각종 상품 가입은 물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및 신용정보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캐시백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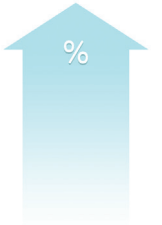
예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무엇인가요?

사이다뱅크 '파킹통장'을 가입하시면 복잡한 실적조건 없이, 높은 금리 혜택을 받으시면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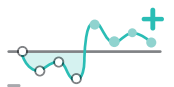
파킹통장이 뭐죠?

파킹통장은 자동차를 잠깐 주차하는 것처럼 여윌 돈을 잠시 맡겨두고 원할 때마다 인출 할 수 있는 자유 입출금통장을 말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짧게 맡겨도 금리까지 확실하게 챙길수 있어 관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마이뉴스통장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은행에서 고신용자만 이용했던 "마통"을 중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출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유용한 서비스가 있나요?

NICE신용정보를 사이다뱅크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신용평점 등을 언제든지 조회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상향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품명 : 입출금통장, 가입대상 : 만17세이상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 금리 : 연1.5%(2020.10.6기준, 세전, 변동금리), 이자지급 : 매월 결산 이자 지급,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90년생도 좋아하는 90년대 히트송



SBI인이 뽑은 90년대 히트송 1위는 “쿨의 애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요계는 90년대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로부터 비·이효리·유재석의 싸스리까지 90년대 감성이 대세입니다. 박문치라는 가수는 90년생이면서 90년대 감성 노래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30년 전 노래들이 다시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노래가 불러 일으키는 추억 감성은 강하다. 30년 전 히트송이 리메이크 되어, 다시 히트송이 되는 이유를 문화평론가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경제 호황기였던 90년대를 추억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와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온 90년대 음악이 과거에 대한 동경에 더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처럼 힘든 현실이 과거 노래를 찾는다는 해석이다. 또한 30년 전에 10~20대가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도 레트로 풍의 90년대 음악을 좋아한다.

지금 가요계를 수많은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경쟁시대라고 한다면, 90년대 양상은 딱히 하나로 꼽기가 어렵다. 90년대 가요 순위 프로그램 ‘가요Top10’ 5주 연속 1위 곡만 나열해도 얼마나 다양한 가수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신승훈, 김건모 등의 남자 솔로뿐만 아니라 부활과 같은 그룹 사운드에 게다가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까지 가수들의 구성이 매우 다채롭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핑클, HOT, 태사자 등 아이돌이 주류를 이루지만, DJ DOC, 클론, 롤라 등 트리오, 듀엣, 혼성 그룹도 골고루 사랑받던 시대였다.

가수들의 구성도 다양했던 만큼 90년 음악은 랩부터 발라드, 록, 트로트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런 색다른 매력을 지금 세대도 느끼는 것 같다. 심지어 90년대 문화에 동경하는 트렌드를 보이기도 한다. 마냥 놀기만 했던 과거의 대학교 신입생은 ‘취준생’이 되지 않으려고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챙기는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으로 접하는 90년대는 사랑과 연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하다. 90년생에게 판타지로 비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10대, 잔나비, 박문치 등 90년대 풍의 가요를 만드는 가수까지 2020년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더욱이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 노래들이 리메이크, 재해석됨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는 90년대생의 특징을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3가지로 들고 있다. ‘꼰대’스러운 게 아니라면 과거의 히트송이라고 멀리 하지 않는다. ‘좋은 노래’는 세대와 세대가 공존하고 통할 수 있는 재미와 정직함이 담겨 있다.

# 애상 COOL

아티스트 : 쿨\_김성수(랩), 이재훈(리드보컬), 유리(보컬)  
작사 : 이승호 / 작곡 : 윤일상  
수록앨범 : 4집 애상(1998.04.01)

## SBI 한줄평

이 익숙한 스토리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90년대 버전  
김평하 과장 | 리테일영업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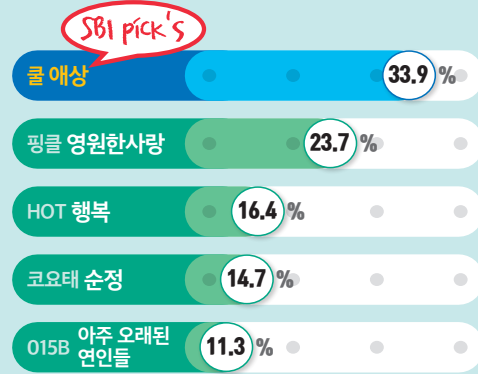
코로나로 애상한 올 해, 즐거웠던 옛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전명지 사원 | 사이다뱅크부

막장 가사, 신나는 춤, 흥겨운 리듬의 콜라보레이션  
김태현 주임 | 기업금융1부

20년이 지난 지금, 8살 딸이 폭 빠져있는 노래. 세대를 뛰어넘는 명곡!  
이훈 대리 | 여신지원부

신나는 추억의 노래, 하지만 22년만에 처음 알게된 분노의 가사  
노소라 주임 | 일산지점

※ 베스트 한 줄 평에 선정되신 분들께 ‘블루투스 마이크’를 드립니다.




<사진 : 가수 앨범사진, 방송화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의 93%가 유튜브를 시청할 만큼 유튜브의 존재감이 막강합니다. 방대한 콘텐츠 속에서 갈피를 못 잡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최근 뜨고 있는 핫 채널을 소개하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 유튜브 속 재미에 빠져 보시죠.

요즘 가장 인기있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가짜 사나이' 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의 유튜브 환경에서 약 5천 만원 상당의 제작비를 쓴 것으로 알려진 가짜 사나이는, 인기 측면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군튜브'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가짜 사나이의 인기 비결을 파헤쳐 보았다.

 유튜브 블록버스터

**진짜보다 더 리얼한**

# 가짜사나이

## 가짜 사나이에 열광하는 이유

가짜 사나이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와 민간군사기업 '무사트(MUSAT)'가 만든 유튜브 예능이다. 유튜버, 스트리머 등 6명의 온라인 방송인이 특수 부대 훈련을 받는 과정을 담았다. 본편 7편을 포함해 스페셜 영상까지 누적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을 정도로 대박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즌2가 제작되며 또 다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인기의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 사나이란 타이틀과는 반대로, 이게 실제인지 연출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리얼한 훈련이 이 콘텐츠가 가진 장점이다. 기성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살벌한 열차려와 거친 고성, 때때로 욕설까지 여과되지 않고 등장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은 코로나 블루로 지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가짜 사나이가 군대 시절의 힘들었던 추억을 소환한다는 점도 빠질 수 없다. 남성의 향수를 자극하는 군대 아이টে모 예능계에 부는 레트로 바람을 제대로 탄 셈이다. 군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던 강도 높은 훈련과 주저 않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대한 못 남성들의 폭풍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가짜사나이 교육생 리뷰

**1번 교육생**  
**전 태 규**  
BJ, 유튜버  
前 프로게이머

교육생 중 유일하게 해병대 출신이자 37세로 최연장자. 다른 교육생들을 챙기는 훈훈한 모습으로 팀워크를 이끈다.  
그 때 훈련소를 나왔을 때 다 기록했거든요.

**2번 교육생**  
**베 이 식**  
래퍼, 유튜버  
2015년 쇼미더머니 4 우승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가짜 사나이의 숨은 에이스. 마지막까지 남아 구보 훈련을 수행한 최후의 1인이기도 하다.

**3번 교육생**  
**공 혁 준**  
유튜버, 스트리머  
前 프로게이머

먹방 유튜버로 가짜 사나이의 탄생에 기여한 일등 공신. 그의 게으름을 없애기 위한 UDT 훈련에서 기획이 시작되었다.

**4번 교육생**  
**가브리엘**  
크로아티아 출신 유튜버  
前 프로게이머

초반에는 개인주의 끝판왕으로 미움을 한 몸에 받은 인물. 중국에는 수영 엘리트로서 동료를 도우며 변신에 성공한다.

**5번 교육생**  
**관 두 립**  
유튜버, 스트리머

독특하면서도 어눌한 발음의 미국인 컨셉을 보유했던 인물이었지만, 부상당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준다.

**6번 교육생**  
**김 재 원**  
유튜버, 스트리머

미필답지 않은 높은 집중력으로 훈련을 견뎌낸 의지의 1인. 나무랄 데 없는 복명복창으로 교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미지: ©피지컬 갤러리

# 가짜사나이 교관 리뷰

## 교육대장 이근

버지니아 군사대학(미국) 졸업  
UDT/SEAL 대위 전역  
前 보안 및 전술 컨설팅 기업 'MUSAT' 전무이사

UDT의 전설이자 미국 NAVY/SEAL 고급반(SQT) 수석 수료, 미국 국무부 안보 수사관 근무 등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넘 사벽 인물. '너 인생 문제 있어'와 같은 유행어 제조기로 맹활약한다.

## 선임교관 에이전트 H

UDT/SEAL 전역,  
유튜브 채널 '미션 파서블' 운영

선임으로서의 카리스마, 비주얼과 피지컬까지 갖춘 훈남 캐릭터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구수한 억양이 반전 포인트다.

## 교관 야전삼

UDT/SEAL 전역  
'MUSAT' 소속

커다란 덩치와 수영과는 어울리지 않는, 빠속부터 달달한 스윗 가이  
힘들 때마다 교육생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자처한다.

## 교관 로건

UDT/SEAL 전역,  
'MUSAT' 소속

이근 대위에게도 인정받은, 다섯 명의 교관 중 사실상 피지컬 1등  
냉철한 모습 뒤에 교육생들을 챙기는 섬세함을 보여준다.

## 교관 김계란

UDT/SEAL 전역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운영

폭염에도 대머리 실리콘 마스크를 쓰고 중형무진한 진짜 사나이  
멀리 있어도 두드러지는 존재감으로 가짜 사나이를 지탱한다.

교관들에 대한 인기도 끊이지 않는다. 살벌해 보이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캐릭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관심은 출연진들 개인 유튜브 채널로 이어져 가짜 사나이의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심리학자로 유명한 황상민 박사는 가짜 사나이의 흥행을 두고 “주도적으로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진짜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이 열풍이 고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캐릭터에게 느끼는 대리 만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인기만큼은 진짜가 확실하지 않을까? 가짜 사나이 2기 모집에 2,000여 명이 지원하였고, 연예인과 국가대표 출신 등 다양한 교육생이 선발되었다. 그리고 업로드되자마자 핫이슈가 되는 걸 보면 가짜사나이 시리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미지 : ©피지컬 갤러리

## 가짜 사나이가 가진 진짜 매력

가짜 사나이의 인기 비결은 6명의 교육생과 5명의 교관들이 가진 생생한 캐릭터의 힘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평균 이하의 체력을 가진 교육생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의 만남만 봐도 캐릭터 설정이 극단적인 걸 알 수 있다. 전문가도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 내몰린 교육생, 그리고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혹한 교관들. 시청자들은 갈등 상황에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힘겨운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을 보며 마치 모자란 캐릭터들의 성장기를 보듯 뿌듯한 감정에 젖는다.



가짜사나이 방영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



헬스와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일명 '뽀뽀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김계란'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큐멘터리, 패러디, 직업 체험 등의 다양한 형식과 다른 유튜버들과의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으로 현재 국내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짜사나이  
1화 보기

## 평범하던 '하루'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해졌다



### 코로나19로 깨닫는 것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하락) (황동규 '즐거운 편지' 中).

우리가 이토록 애달프게 각자의 일상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코로나19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동안 이어진 '기다림'은 사람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열렬히 사모하게 만들어버렸다. 코로나19라는 병마가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바 이러스는 어떤 면에선 우리 일상을 중지시켰다.

본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달력의 검은 글자처럼 평범했다. 기다리지 않아도 매일 같이 찾아왔고 영원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가족 같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일상'이 돌변했다. 달력 속 빨간 날이라도 된 냥 '한없이 잇닿은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가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넘처럼 굴었다. 아직 매일 찾아와 주는 이들에게는 '하루'는 마치 입장이 역전된 갑처럼 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평범하던 하루는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한졌다. 평범해 보이던 이성이 '저리도 매력적이었나?'하며 눈 씻고 다시 보게 된 순간처럼 말이다.

### 하루의 매력은 '자유'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하루의 매력 중 하나는 '자유'다.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속받고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여겨왔다. 생활에 얽매어서, 일 속에 파묻혀 또는 관계에 구속받으며 오늘을 보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렬해 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낀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빵 반죽에 발린 버터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자유가 많이 녹아 있었다고 말이다.

우선 마스크를 하면서부터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자유였는지를 깨닫게 됐다. 마스크를 사고 챙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전혀 들지 않던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졌다. 물론 마스크를 하면서 여성들은 화장(makeup)하는 수고로부터 벗어나고 스타일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자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 자유와 비교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일상을 파고들면서 새롭게 발견된 자유 중 하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이동의 자유다. 확진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병실에 갇히고 자가 격리자들은 자신의 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길게는 2주간 버텨야만 했다. 확진자와 동선이라도 겹치면 비감염자라도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거나 인근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자발적인 집독이와 집순이를 선택한다. 마음껏 도심 속을 활보하며 맛집을 탐방하고, 카페에 앉아 점원이 갓 내려다 준 드립커피를 마시며 벗들과 노닥거리던 소소한 드나들의 자유가 말할 수 없이 특별해졌다.



### 미우나 고우나 '우리'

코로나가 일깨워준 '평범한 하루'의 매력 속에는 자유만 아니라 '우리'가 있다. 어느새 '우리'보다 '나'가, '함께'보다는 '혼자'가 익숙하고 편해진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이어주고 있다. 과연 그럴까? 대다수 사람들에게겐 코로나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꽃밭을 망쳐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일 것이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다못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진원지, 슈퍼 전파국 운운하며 특정 국가나 민족·지역에 대한 적개심의 이빨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웃이나 배려심 없는 모임을 목격하기라도 하면 맹비난을 쏟아붓는다. 심지어 직장과 학교에 가는 대신 하루 종일 집안에 함께 갇혀 지내는 가족들조차 서로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흉이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라니?

나타나는 모습이나 감정은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준 메시지는 조금 의외다. 바로 '모든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라는 진리이다. 나라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도 지구촌은 이미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곳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유기체다.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 진리이지만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갔다. 한 나라 안의 지역 공동체나 가족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병들면 나도 병들 수 있고 내가 병들면 상대도 병들 수 있다. '혼밥' '혼술'을 즐기는 이들조차도 막상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지면 잘 살기는 어렵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가족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치 2인 3각 경기에서 함께 발을 묶은 팀원이 넘어져서 결국 자신까지 게임에서 지고 말았을 때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것이 꿈틀대곤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어떻게 하면 홀가분한 혼자로 존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 우리의 일상을 그리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보여준 건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직업적 소명감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확진자들 곁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이 이를 입증했다.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의 집 문 앞에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식료품을 몰래 두고 가거나 집 건너편 창가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착한 이웃들이 아직 멸종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혹은 길에서 마스크를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를 보면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한참을 돌아가는 어른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출자하는 기업가 마인드와 인류애를 목격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가족 구성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부대끼며 체온을 나누고 있다.

서두에 적어본 시의 화자는 결의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다진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현실을 지나고 있는 지금은 아직도 어두운 밤, 더구나 눈이 퍼붓는 밤일지도 모른다. 확진자 수 0명이 지속되는 어느 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어느 날엔가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믿는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애달픈 사랑 또한 멎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기억해낼 것이다. 행복은 결국 이처럼 사철이 지나는 동안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듯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 희망저축 캠페인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하도록 아이들의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SBI저축은행이 우리 주변의 소외아동들과 함께 합니다.

SBI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듬어야 할 위탁종료아동, 학대피해·파산가정 아동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SBI는 사회적 사각지대로 불리는 소외아동을 위한 '희망저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 SBI 희망저축 캠페인

#### 위탁 종료 아동 지원

- 후원금 적립 통장 개설
- 퇴소 아동 독립 자금 지원

#### 파산가정 아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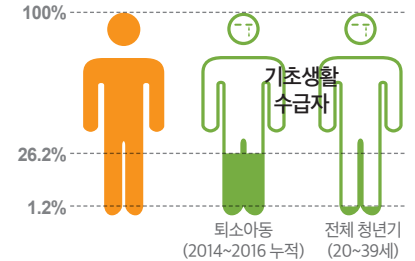
- 비전나눔캠프
- 금융 지원
- 금융 멘토링

#### 학대 피해 아동 지원

- 심리 치료 지원
- 가정 지원
- 인식 개선, 홍보

### 열여덟 어른이 된 아이들 보급자리 자금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시설 아동이 18세 이상이면 자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이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기에 아동보호법은 더 이상 이들에게 울타리와 지붕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위탁 보호종료, 보육원 퇴소 자립청소년이라 불리는 이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전한 '자립'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퇴소 직후 생활고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매년 2,500명에 달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2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 준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열여덟 어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퇴소 아동이 사회의 문을 처음 두드리면서 가장 막막해 하는 분야는 바로 '살 곳'입니다.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은 주거환경 불안정으로 각종 사회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정부자립 지원금은 현재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SBI저축은행이 이러한 ‘열여덟 어른들’에게 보금자리 마련의 마중물이 될 ‘독립자금’을 후원합니다. SBI와 결연을 맺은 아이들에게 매 월 후원금을 적립합니다. 후원 통장은 청년 취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퇴소 아동들에게 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SBI는 지난 9월 한국구세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원 내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3명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SBI는 더 많은 ‘소외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SBI저축은행과 한국구세군 업무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정진호 대표이사, 한국구세군 정만희 사령관

SBI저축은행은 다양한 활동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합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심리치료 전문지원과 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재학대 방지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사업에 앞장 설 것입니다.

파산가정 아동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가정의 자립을 돕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비전나눔캠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기 위해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채무관리, 재무계획 수립 등의 기반을 닦아주고자 합니다.



SBI저축은행이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신규 사회공헌 캠페인 ‘SBI(아이) 희망저축 캠페인’의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사랑의 열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소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SBI저축은행은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저축은행’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왔습니다. SBI희망봉사단, 복지시설 자매결연, 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활동에 이어 2020년에는 ‘SBI 희망저축 캠페인’으로 소외아동들의 손을 힘껏 잡아주려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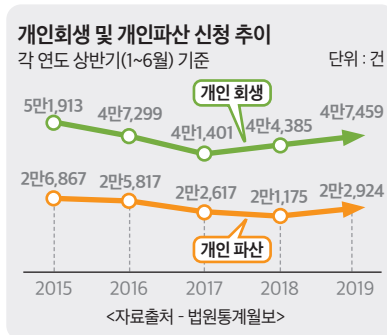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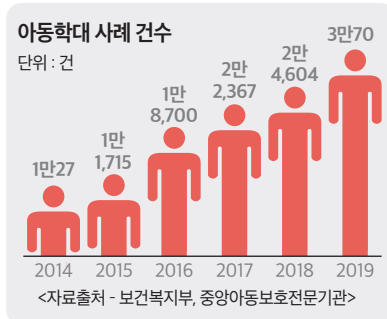


## 학대와 가정 파산에 그늘진 아이들

2014년 연 1만 건 정도였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에 만 약 2만 4천 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나 다른 가족인 경우여서 ‘이웃의 무관심’이 학대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아동권리 보장원,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부모의 개인회생 문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2,924건 (2019상반기)에 달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경험하는 가정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I저축은행은 ‘SBI(아이) 희망저축 캠페인’ 두 번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대 가정과 파산가정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사회공헌 단체인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사회연대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SBI의 새 식구들, 미리 알아 두면 좋잖아요?  
감출 수 없는 이들의 자랑거리를 물어 보았습니다.

- 1. 'SBI저축은행'과 버금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 2. 가장 잘하는 운동, 혹은 자랑할만한 취미가 있다면?
- 3.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속으로 흐뭇했던 칭찬이 있다면?
- 4. 앞으로 SBI저축은행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나?



정인화  
상근감사위원



신지용  
부장 | IT개발부

- 1. 우연한 기회에 트레킹클럽에 가입하여 "걷기운동" 시작 한 것. 허리사이즈가 줄었다.
- 2. '테니스'를 즐기하며 주말 오전은 라켓과 함께!
- 3. Task Force team 전문가. 뭔가 새로운 사업의 초석을 잘 다진다. 90년대 금융전산화, 핀테크혁신TF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일가견
- 4.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금융 회사'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도 SBI에 다닌다고 하면 알아 주는데... 앞으로도 짝옥~

- 1.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 한 것. 가끔 후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내 짝 잘 만났구나 싶습니다!
- 2. 자랑할 만큼 잘 하는 운동은 없지만, 작은 공으로 하는 운동은 모두 좋아합니다. (테니스, 스쿼시, 골프, 당구 등)
- 3. 주니어 시절에 책임자급 업무를 받았을 때! (말보다 더 좋은 칭찬이라고 느낌)
- 4. "누구에게나 나, SBI 다녀!"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적뿐 아니라 다니고 싶은 회사 1등 저축은행!



윤창욱  
부장 | 정보보호팀



권성오  
과장 | 정보보호팀

- 1. 4인 식탁에 빈자리가 없는 가족을 이룬 것
- 2. 학창시절에는 키가 큰 편이라 농구할 때 항상 선발되었지만, 아쉽게도 우승한 기억은 없네요
- 3. 수고했어, 덕분에, 새로운 생각이군!
- 4. 직장생활의 마무리를 함께한 회사

- 1.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인 것 같아요. 물론, 웹진이 나오면 아내에게 보여 줄 겁니다.
- 2. 축구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취미로 해외 축구 유니폼을 수집했었습니다.
- 3. 대리 시절에 일처리가 깔끔하다며 협업부서 분들이 "권차장"이라고 절 불러주곤 했습니다.
- 4. 권성오가 가장 오래 다닌 회사

김진형  
기업금융1부 | 주임



김홍동  
IT운영부 | 대리



- 1. 무역학 전공이었지만, 금융권에 관심을 가져 현재 SBI저축은행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 2. 대학시절 교내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었습니다.
- 3. "김주임이 요즘 일을 잘하는 것 같다."
- 4. 지금도 이직한 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업계 최고에 걸맞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아이를 갖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 2. 탁구를 잘치는 것 같고 대부분의 구기운동을 좋아합니다.
- 3. '나가 있어서 프로젝트 돌아간다.'
- 4. 더할 나위 없었다.





## SBI저축은행, <저축가요> 캠페인 '2020 에피어워드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수상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저축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저축가요> 캠페인이 '2020 에피어워드 코리아'에서 '브랜디드 콘텐츠'와 '금융' 2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에피어워드는 1968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시상식이다. SBI저축은행의 <저축가요> 캠페인은 뉴트로(New-Tro) 콘셉트로 오래 전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개사해 저축송으로 제작했다. 헤은이 '제3 한강교'와 장덕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를 '월급을 흘려갑니다', '너나 낭비해 나는 저축해'로 바꾸어 대중에게 저축 장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저축가요>의 캠페인은 취지, 창의성, 전 연령이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축가요>는 유튜브 조회수 510만을 돌파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오디오부문 은상 수상에 이어 '2020 에피어워드 코리아'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 동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자는 캠페인이다. 외교부 직원 아이디어로 시작된 스트롱 스테이는 기도하는 손 씻는 그림 팻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챌린지다. 키움증권 이현 대표로부터 지목을 받은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는 다음 주자로 아주IB투자 김지원 대표, 에이블호텔현대엔리조트 최종윤 대표, KCC오도 이상현 부회장을 추천했다. 임진구 대표는 "높은 시민의식과 협력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 SBI저축은행, 금융사기 최소화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자산기준 업계1위(20.06경영공시) SBI저축은행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시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 내용을 분석해 금융사기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출금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 시가반의 FDS 시스템 도입 이후 8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이번 FDS 고도화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다음 호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과 <SBI pick's>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 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 편집후기

이번호 NEW FACE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속으로 흐뭇했던 칭찬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칭찬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넌 어딜 가서도 네 묵은 할거야"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어딜 가든 민폐는 끼치지 말라'는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 조금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인주의와 성과주의가 결합되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일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에게 말 건네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멀어지려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도 왠지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 차가워지고 채찍질만 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한편으로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부적인 변화가 삶을 위협하는 등 불안한 환경 속에서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을 견뎌낼 수 있다> 미국 소설가의 마크트웨인이 남긴 글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전 별거 아닌 것에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저를 기억해 줬다는 거니까요. 이렇듯 칭찬은 '별거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들어주는 사소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칭찬하고 있나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의 아주 사소한 점이라도 칭찬 한마디 건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장님도 꼭 이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 칭찬에 목말라있거든요. 칭찬은 공짜입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12월 21일(월)까지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